

# '2009마리 나비' 오월 영령 넋 위로

## 5·18 29주년 기념행사 이모저모

○한평군이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29주년 기념식에서 5·18 영령의 환생을 바라는 '2009마리 나비'를 날려 눈길.

정치인과 학생들이 추모탑 앞에서 원형의 유리상자에 담긴 2009마리의 추모의 나비를 날리자 추모객들은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 추최측은 흰색은 신생, 순결, 고귀, 재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비로 환생한다는 믿음이 전해내려와 하얀 나비를 날렸다고 설명. 추

모객 이순이(여·43·전북 군산시)씨는 "5·18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운동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와서 묘역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울며.

### 종이학 1만마리 들고 참배

○고(故) 윤상원 열사의 모교인 삼례시외고등학교 학생 등 고교생 12명은 종이학 1만 마리를 든 유리상자를 들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국제고·경신여고·전남여고·전남여상·동신여고·송일고 등 학생들은 지난달 18일부터 5월17일까지 한 달 동안 종이학 1만 마리를 접어 이날 윤상원 열사의 묘에 바치며 선배의 넋을 위로. 이들 학생들은 "앞서가 있다"며 "실제 와서 묘역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울며.

○기념식이 열린 국립 5·18 민주묘지는 이명박 대통령 불참에 따라 돌발 변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경비 인력도 감소. 경찰은 지난해 부대당 100명 가량

으로 구성된 전·의경 중대 98개를 배치해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과 경찰관

### 대통령 불참 경비 줄어

까지 합하면 1만 명을 넘는 경비 인력이 기념식장을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였으나, 올해는 부대당 약 70명씩 구성된 전·의경 중대 25개만 배치, 경찰관을 포함한 경비 인력은 2천여 명으로 축소.

○정세균 민주당 대표 명의의 화환이 기념식이 끝난 뒤에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는 등 해프닝. 정 대표의 예도 화환은 29주년 기념식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 이날 기념식 시작 전 국립 5·18 민주묘지 행사장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등 10여 개의 화환이 놓여 있었으나 민주당 대표나 당직자 명의의 화환은 없어 참배객들은 의아한 표정. 시민 이모(45)씨는 "이유야 어찌됐든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기념식이 끝난 뒤에야 예도화환을 보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6분 해질 19시 32분 달출 01시 51분 달몰 14시 00분

**외출하기 좋은 날**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고 바람이 약간 불겠다.

광주	맑음	15/29℃
목포	맑음	14/24℃
여수	맑음	15/24℃
완도	맑음	13/26℃
구례	맑음	9/29℃
해남	맑음	12/26℃
장흥	맑음	12/27℃
고흥	맑음	10/26℃
순천	맑음	12/27℃
영광	맑음	11/26℃
진도	맑음	13/26℃
전주	맑음	12/28℃
남원	맑음	9/28℃
옥산도	맑음	14/23℃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목포 09:20	02:35
면바다	남서~서	0.5~1.0m	21:58	15:2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여수 04:48	11:11
면바다	남서~서	0.5~1.5m	17:23	23:19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9	15/21	13/26	14/25	14/26	14/27

## "5월 행사 불거리 위주로 전략"

### '5·18 학술대회' 김기곤 전남대 연구교수

민주와 인권의 도시인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타협과 조정의 기능이 마비되고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직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미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 남부원 광주Y 사무총장

### "도청별관 철거 갈등

### 공공윤리 부족 때문"

남부원 광주 YMCA 사무총장은 전남대 5·18 연구소 주최로 20일 열린 예정인 '광주 5·18민중항쟁 제29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된 '광주 시민사회의 이중성: 민주주의 시각'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남 사무총장은 이 발표문에서 "광주의 시민사회가 5·18의 이념인 민주, 인권, 평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시민사회 내부에 얼마나 내면화시키고 있는가"를 묻고 "도청별관 문제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공공적 윤리의식이나 질서외부의 취약함, 높은 청소년 성매매율 등은 광주 시민사회가 시민으로서의 공적 의식과 공

공윤리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적 덕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의 육성,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 성숙한 시민사회를 가꾸기 위한 시민운동 등을 통한 작은 민주주의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기곤 전남대 5·18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5월 행사로 본 5월의 문화화'라는 발표문에서 "5월 행사는 '문화도시 광주'의 이념적 기초 및 문화적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실천과 체험의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5월 행사가 문화행사를 통한 오락과 불거리 위주의 스펙터클의 전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문화도시의 5·18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총체적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대 5·18 연구소는 5·18 민중항쟁 제29주년을 맞아 19일 안경환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갖고, 21일에는 안재근 1987년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오월단체 '도청 별관' 입장차만 확인

### 5·18 시민광장 토론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열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고 말했다.

제 29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 위원회(행사위)는 18일 옛 전남도청에서 '29주년 5·18 광주 공동체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5·18 시민광장'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로 분열됐던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내자는

취지에서 토론 주제 없이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토론회장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놓고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 회원 간에 고성아 오가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옛 도청 별관 철거 문제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들 간에 이견이 맞았으나, '80년 5월 광주'와 달리 '현재의 광주'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토론회를 마친 뒤 '5·18

시민광장'처럼 광주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행사위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성년의 날 '소녀에서 숙녀로'

'제 37회 성년의 날'인 18일 광주항교에서 열린 성년례(成年禮) 행사 도중 참가 학생들이 한복을 입은 자신들의 모습이 신기한 듯 휴대전화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노후 아파트 42동

### 외벽 디자인 새 단장

광주시내 노후 아파트의 외벽 디자인이 새롭게 단장된다.

광주시는 18일 올해 아파트 외벽 색채디자인 개발·지원대상으로 북구 오치 주공1단지 등 노후 아파트 7개 단지 42개 동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07년 하남주공아파트 등 10개 단지와 지난해 삼천시영아

트 등 3개 단지의 외벽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디자인했으며, 올해는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 대상을 대폭 늘리고 시기도 앞당겼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소규모 아파트는 단순 도색에 그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등 도시경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광주 고유의 선과 지역 특색을 살린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지원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치 먹으면 AI에 효과"

### 식품연구 '신종플루도 실험'

발효가 잘 된 김치를 먹으면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이겨 낼 수 있다는 국내 동물실험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원장 이무하)은 2006~2008년 '김치의 조류인플루엔자 억제 효과 연구'를 한 결과, 김치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김명진 박사, 전북대 장형관 교수, 강원대 이민재 교수 합동연구팀은 실험 닭 115 마리 가운데 2개 그룹 23마리는 김치

추출물 대신 기준사료만 먹이고, 나머지 8개 그룹 92마리는 고체농도 김치추출물을 각각 4주간 먹였다.

이후 5주째 AI 바이러스를 닭의 코로 주입해 감염시킨 뒤 부검을 해 보니 김치추출물을 먹지 않은 2개 그룹 닭 23마리 가운데 6마리의 인후두부와 맹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반면 김치추출물을 먹인 닭 가운데 저농도로 섭취한 닭 2마리만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뿐 나머지 닭들은 매우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다.

김명진 박사는 앞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A(H1N1)'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김치가 어떤 억제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www.tourmarathon.com

2009년 5월 19일 화요일

2009년 5월 19일 화요일

2009년 5월 19일 화요일

2009년 5월 19일 화요일